

#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 돌파

평균 판매가격 13.29원 올라 1568.38원 ... 서울 1629.48원으로 최고

국제유가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 이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11월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10월29일-11월2일) 전국 주유소 1100곳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68.38원으로 전주대비 13.29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최고치였던 7월 넷째주의 1557.38원보다 11월이나 인상된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은 리터당 1629.48원으로 전주대비 무려 21.59원 폭등했고, 전국 시·도 가운데 평균가가 가장 낮은 광주에 비해 93.29원이나 높았다.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1356.05원으로, 전주대비 16.37원 급등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10월 넷째주 최고치였던 실내 등유 가격은 19.40원 폭등한 985.92원으로 1000원선에 바짝 다가서며 기록행진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2>